여기 사람이 있다 9호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http://mbout.jinbo.net 02-795-1444
2009.4.17

다시 민주주의 촛불을 밝힐 때

4월에서 5월로, 용산에서 전국으로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옵니다. 먹고 살기는 어려운데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일자리는 자꾸 없어지는데 이런 마당에 비정규직 기한 연장이나 하려고 하고 최저임금도 삭감하려고 합니다. 이제 병원도 영리병원이 들어서서 돈 없는 서민들은 병원 문턱에도 가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높다고 항의 기자회견을 하던 대학생들은 무더기 연행되었고,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기 하려는 일제고사에 반대하였다는 교사들을 무더기 징계하고 있습니다. 공정언론 사수를 주장하던 YTN과 MBC의 기자와 피디들은 검찰,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고, 소신 있는 발언을 한 앵커는 자리에서 물러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정부는 1%의 부자들을 위한 소득세 감면에 이어서 양도소득세도 깎아주고 다시 부동산 투기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민을 희생시켜서 소수의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도록 하는 정책을 매우 과감하게 추진하는 게 이명박 정부입니다.

서민을 희생시켜 부자만 더 부자 되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1년 2개월,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용산에서 철거민들을 불구덩이에 집어넣어 태워죽이고도 한 마디 사과도 없는 게 이명박 정부입니다. 오히려 용역 깡패들의 폭력에 쫓겨 살기 위해서 마지막 선택을 했던 망루에서 죽어 내려온 철거민들을 불법테러집단이라고 매도하고, 고인들의 영정조차 짓밟아 깨버렸습니다. 살인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추모대회를 매번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진압하기에 급급하고, 전철연과 용산범대위를 탄압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추모집회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찰관 폭행 사건을 문제 삼아 이른바 '전문 시위꾼'들을 색출한다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벌써 3백 명에 이르는 촛불 시민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용산 학살에 항의하는 집회와 시위를 철저하게 원천봉쇄하고, 언론사 기자와 피디마저 연행 구속하는 검찰과 경찰은 그러나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올랐다는 '조선일보 방사장, 스포츠조선 방사장' 수사에는 신중을 기한다면서 수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2개월은 민주주의와 경제를 모두 죽이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이 뒤따를지 모릅니다.

4월 29일은 용산 학살이 발생한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5월 2일은 촛불 항쟁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용산범대위는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를 범국민추모주간으로 선포합니다. 용산참사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모든 양심 있는 사람들, 언론의 자유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모든 분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하는 모든 노동자들, 비싼 대학 등록금과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국민들, 살 집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서민들,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느끼는 모든 시민들은 4월말 5월초 집중투쟁 기간에 모두 함께 합시다. 4월을 넘어 5월로, 용산을 넘어 전국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 번 켠 촛불은 계속 밝혀야 합니다. 민주의 새벽이 올 때까지.

모이자, 4월 29일

신문20090418.indd 1 2009-04-18 오전 2:21:01

용산참사 그리고 투쟁의 기록

◀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당시 상황. 김석기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 취임 직전 경찰은 철거민 투쟁에 대해 유례없는 강경진압 작전을 펼쳤고, 그 과정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 5명이 사망, 특공대경찰관 1 명 사망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 참사 발생일인 1월 20일 용산범대위가 구성되었고, 그날 저녁 분노한 시민들이 용산에 모여서 철거민 살인진압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 용산범대위는 1월 24일 서울역에서 범국민추모대회를 열고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진상규명, 책임자 철벌! 김석기, 원세훈 등 책임자 처벌! 뉴타운, 재개발 중단! 이명박 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내걸고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 이명박 정부는 초지일관 강경대응으로 일관하였으며, 경찰은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적 연행, 탄압을 자행하였다.

▲ 검찰은 예정된 각본대로 경찰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짜맞추기 수사결과를 발표하였고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범대위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에 대한 사망을 선고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이는 무산되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자진사퇴를 내세워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다.

▲ 지금도 참사현장인 남일당 건물 1층에는 현장분향소가 차려져 있고 매일 촛불 추모대회는 지속되고 있다.

▲ 그러나 참사에 대한 정부와 구청, 개발조합, 용역업체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용산 4구역 재개발은 다시 강행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용역깡패의 비호 아래 철거는 진행 중이다.

◀ 우리의 투쟁은 멈출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공안통치는 날이 갈수록 간악해지고 있지만 용산 4구역 철대위 회원들과 용산 살인진압을 규탄하는 추모와 저항의 물결은 지속되고 물러섬 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살인개발과 민중학살을 멈추기 위해 흔들림 없는 투쟁을 전개해 나아가자.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00일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아무도 사과조차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억울하고 어디 제대로 호소할 곳도 없어 답답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돌아가신 저희 유가족의 아버지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비통하시겠습니까? 비록 저희 아버님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또 잘못된 개발정책에 맞서 싸우시다 돌아가셨지만 이 일이 저희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부디 이 땅의 주인인 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종민 (故 양회성 열사 차남)

"고인이 72세라는 나이에 살겠다고 아들과 망루에 오른 것도 모자라 이젠 테러리스트라는 오명까지 덮어쓰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곳까지 갔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그 또한 많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현실도 속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지 진실이 숨겨지거나 감추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진실이 있기에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꼭 열사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상규명의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 때까지 저는 지칠 수도 없습니다. 진실은 승리합니다!"

정영신 (故 이상림 열사 며느리)

갑작스러운 일을 당해 답답하기만 합니다. 다섯 가족 모두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는데 정부는 꿈쩍도 안 하고 사람들이 지친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남편이 부당한 현실에 맞서기로 마음 맞는 사람들과 결정해서 한 일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진상이 밝혀지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못 하는 일이고 같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신숙자 (故 한대성 열사 부인)

저에게는 하나뿐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는 게 괴롭기만 합니다. 이제 이런 괴로운 일들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런 세상이었다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0일입니다. 100일이 되도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윤상필 (故 윤용헌 열사 차남)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거리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눈물도 안타까운 마음도 경찰과 정부에 대한 분노도 전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경찰은 전철연 식구들과 범대위 식구들을 잡아가두려고만 하고 진실을 밝혀달라는 우리의 목소리를 방패로, 버스로 막아서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세 달이 넘도록 함께 싸우고 힘이 되어준 모든 분들이 오늘까지 우리 유가족들을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비록 돌아가신 분의 목숨을 되살릴 수는 없지만 진실을 밝히고 더 이상 이런 참혹한 죽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겁니다.

권명숙 (故 이성수 열사 부인)

용산 범대위 동지들께

검찰조사를 받고 돌아와 보니 '접견민원서신'이 와 있군요. "안녕하세요, 용산위원장의 처이자 고 이상림 열사의 며느리인 정영신입니다" 서신이라기보다는 추모대회에서 유가족 발언을 듣는 듯 하여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진듯합니다.

엊그제 밤에는 "여기 사람이 있다"를 모두 읽었습니다. 몇 일간 꼼꼼히 읽었지요. 60여 일간 함께 투쟁하면서 얼굴은 알지만, 그 세세한 삶의 내력은 잘 몰랐던 분들의 얘기를 읽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지요? 특히 유가족분들 스스로 건강 챙기시는 게 쉽지 않은데, 건강하셔야 합니다.

3월 20일 저녁 촛불추모제에 나가다가 병원 앞에서 연행되었지요. 언젠가는 이런 때가 올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막상 자유를 잃고 나니 투쟁에 대한 이런저런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명색이 상황실장이라는 자가 무책임하게 경거망동했다는 꾸지람을 들을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러나 일단 접어두고 열심히 빵살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기소된다고 하더니 어제 다시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제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고서 저장되어 있는 통화내역(문자 등)과 전화번호를 찾아내었나 봅니다. 그것 가지고서 상황실 요원이 누구냐? 가두투쟁 관련자가 누구냐? 등 물었는데 별거는 없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쯤에 기소가 될 모양입니다.

제가 있는 방에는 모두 7명이 있는데, 그 중 한명은 철거용역업체 직원입니다. 서른이 안 된 젊은 친구인데 "여기 사람이 있다"를 열심히 읽더군요. 읽고나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 아냐"고 묻더군요. 그렇다고 했지요.

무얼 느꼈는지 묻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나갈 모양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라면, 딴 일 해라"는 한마디는 했습니다. 그 친구 오늘 낮에 운동시간에 같이 걸으면서 그러더군요. "이제 농사나 지어야 겠다" 고. 참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세상입니다.

비록 두 달 정도지만 동지들과 함께 투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말도 많고 힘도 딸리는 요즈음 운동 상황에서 그래도 제법 호흡이 잘 맞았지요?

이 투쟁도 지난날의 수많은 투쟁처럼 힘이 모자라서 질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스스로 물러서거나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투쟁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데, 강제철거로 죽이고, 저항한다고 죽이고, 죽여놓고 또 죽이는 "용산참사"를 어찌 중간에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서도 '사회정의', '민주', '진보', '평등' 등을 외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황실 동지들께 왜 이리 흥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부터 빵살이 스트레스가 쌓이나 봅니다.

조사하든 경찰인가 검사인가도 용산범대위가 걱정되는지, 후임 상황실장이 누구인지 묻더군요. 자존심도 좀 상하고 해서 호기롭게 큰소리 쳤습니다. "용산 범대위에는 진보정당, 민주노총, 전농, 한국진보연대, 인권, 종교, 학술 등 내노라하는 운동단체들이 함여하고 있다. 나 정도의 상황실장은 얼마든지 있으니 각오하라!"고 말입니다.

제가 너무 큰 소리 친 건가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탄압이 좀 심해진다고 하여 용산범대위의 투쟁이 약화되도록 제 단체들이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을 믿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깁시다. 꼭!

2009.4. 9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상황실장

김태연

언제까지 당하기만 할 것인가

불도저 MB 정권에 맞서 총력 투쟁할 때다

일부 보수언론이나 우익집단 외에 대부분의 국민이 이명박 정권에 대해 혀를 차고 있다. 소통 없는 정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부, 주민 80%가 쫓겨나는데도 뉴타운 개발을 확대하는 정부, 경제를 살리겠다더니 부자만 살리는 정부, 산재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비정규직, 인턴제가 확산되어도 기업이 먼저다고 이야기하는 정부, 살인진압으로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 한명이 죽었는데도 불법시위 때문이라고 왜곡하는 정부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최근 MB정권은 경제위기를 타개한다며 초임 삭감을 대대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초임을 비롯 임금까지 삭감한다면 결국 죽어나가는 것은 국민이요, 이득 보는 것은 소수의 가진 자들 뿐이다.

더욱이 일자리를 보장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MB정권은 명예퇴진과 희망퇴진을 강요하며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계약해지, 재계약거부 혹은 무급휴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있다. 이도 모자라 비정규직법을 재개악하여 비정규직 노예계약기간을 4년까지 연장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보장한다더니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MB정권은 추가경정예산으로 28조 9천억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 '세입결손'분이 무려 11조 2천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그 이유로 마이너스 성장 전망과 실업 증가를 꼽지만 부자감세 때문에 세입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부자감세 해놓고 슈퍼추경을 하니, 결국 이를 국민의 혈세로 메꾸겠다는 말이다.

국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MB정권,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MB정권의 실체가 용산참사를 통해 고스란히 확인되었다.

언제까지 당하기만 할 것인가? 불도저 MB 정권에 맞서 총력 투쟁할 때다.

용산 참사 '감춰진 진실' 있다

손석춘(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진실이 묻히는 게 가장 무섭다. 서울 용산에서 참혹하게 죽은 철거민의 유족들이 한결같이 토로하는 말이다. 여론시장을 독과점한 신문들은 유족들의 말을 시들방귀로 여긴다. 그들에게는 드러날 진실이 더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아니다. 용산 참사에 분명하게 밝혀야 할 진실이 묻혀있다는 게 확인되었다.

용산 철거민들의 농성에 경찰특공대가 전격 투입될 때, 경찰종합학교 교장이던 박종환. 그는 참사 직후 치안정감으로 퇴임했다. 그는 퇴임식에서 경찰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인권보호'임을 강조해서 몇몇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참사당시 경찰종합학교 교장 박종환의 증언

하지만 그때는 용산 참사를 정확하게 꼬집지 않았다. 퇴임 직후 가진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도 "진압작전이 성급했다"는 지적에 그쳤다. 말을 아낀 셈이다.

그가 최근 봉은사(주지 명진 스님)가 발간하는 월간 〈판전〉과의 인터뷰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정용일 기자가 용산 참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 지 묻자 그는 "한마디로 실패한 작전"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진압의 목적과 방법, 대상이 예측 가능하도록, 최소 침해의 원칙 등 4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농성장소에 위험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것이 소진되기를 기다리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도 없이 바로 그 다음날 진압에 들어가는" 무모한 작전을 비판했다. 이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외부의 압력이 있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상규에 어긋나는 진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외부 압력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작전

여기서 곧장 의문이 일어난다. 참사 발생 당시 경찰종합학교 교장이던 그가 단언하는 '외부의 압력'은 누구일까? 그의 인터뷰를 짚어보면 그것이 '경찰 외부'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몸으로 막는 것은 경찰인 데 '판단'은 다른 곳에서 한다는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앞서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도 "집회와 시위에 관한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한다면 당연히 주무 부처는 경찰청이 돼야 한다"며 "집회와 시위에 관한 한 다양하고 쓰라린 실패 경험을 쌓은 경찰에게 판단을 맡기면 잘할 텐데 회의는 경찰청 밖 타 기관에서 열리고, 판단도 타 기관 몫"이라고 지적했다.

그랬다. 문제의 핵심은 명확하다. 경찰종합학교 그의 전임자는 다름아닌 김석기였다. 경찰 핵심직에 있던 박종환이 용산 참사에 대해 '외부의 압력이 있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작전'이라고 확언하는 데는 근거가 있지 않겠는가?

용산 참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끝까지 김석기를 두남두었다. 수사 결과도 '숨진 철거민 탓'으로 귀결되었다. 과연 그래도 좋은가? 수사에서 외압의 실체는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수사과정에서 외압은 전혀 논의조차 안 돼

용산 참사는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장자연 리스트, 청와대 행정관의 성상납,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로 곰비임비 이어지는 사건들 속에 묻히고 있다. 물론, 장자연 리스트도, 박연차 리스트도 한 점 의혹없이 밝혀야 한다. 다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다. 생존권을 위해 농성에 나선 국민 5명이 경찰 진압과정에서 참혹하게 숨졌는데도, 진상조차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의 존경을 받던 박종환 전 경찰종합학교 교장의 '외압 증언'은 경찰에게도 '살인 경찰'의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기회'다. 참사를 부른 경찰특공대의 무모한 투입, 그것을 지시한 외압의 실체는 과연 누구일까. 용산 참사 특검이 절실한 이유다.

용산참사 유가족 돕기 Live Aid [추모콘서트]

"희망"

일정: 2009년 4월 23(목)~24(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추계예대 추계콘서트홀(아현역 2번출구)
주최: 용산참사 유가족 돕기 콘서트 준비위원회
주관: 문화연대
공연팀: 23일 이승환, 이상은, 흐른, 원디시티, 오! 부라더스
24일 이한철, 브로콜리 너마저, 킹스턴 루디스카, 갤럭시 익스프레스, 블랙홀
공연티켓: 2만원(하나은행159-910003-67004 예금주 문화연대)
문의전화: 02-749-0883 (콘서트 준비위)

용산참사 관련
DVD와 소책자를 판매합니다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 개발에 맞서는 그들의 이야기

* 시간 : 32분54초
* 내용 : 용산참사의 본질적인 원인인 대책없는 막가파 개발에 맞선 세입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용산 철거민들이 망루에 오를 수 밖에 없었던, 망루 이전의 진실을 밝혀본다.
* 판매가 : 10,000원

용산철거민 살인진압의 진실

* 페이지 : 40페이지
* 내용구성
  · 범대위 발간사 / 유가족 인사글
  ·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의 진실 10문 10답
  · 2월 9일 검찰수사결과 문제점
*판매가 : 1,000원

* 구입문의 : mbout@jinbo.net / 02)795-1444

함께합시다!

· 매일 저녁 7시 용산참사현장의 추모미사와 촛불추모제에 함께합시다.
· 매주 토요일 용산현장 및 서울도심에서 있는 범국민추모대회에 함께합시다.
· 참사현장에 용역과 경찰의 침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사현장 분향소 조문에 함께합시다.
· 용산참사현장에 있는 레아호프(고 이상림 열사 운영)가, 문화공간과 촛불미디어센터로 개관하였습니다. 레아에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 유족돕기와 부상자 병원비마련을 위한 모금에 동참합시다.
국민은행 295401-01-156716 (이종회)